



2015 01

제237호 www.yangyang.go.kr

- 발행일 : 2015. 1. 26(월)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손양면 동호해변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의 규제완화 현장점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 동서고속도로 개통 지역발전 앞당긴다 <2-3면>

· 우리군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 <4-5면>

· 동해안 규제완화 우리군에서 시작 <8-9면>

· 양양국제공항 선호도 전국2위 <10-11면>

· 양양의 맛을 알리다 <12-13면>

· 일년농사 정보알림 <16-17면>

힘찬도약

명품도시





## 동서고속도로 내년 개통

### 연간 물류비 3천억 절감효과 ...

우리군은 올미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국토의 동서를 횡단하는 대동맥으로 꼽히는 동서고속도로 조성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은 총 사업비 2조3,841억원을 투입, 지난 2008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내년 말에는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를 출발해 홍천 내촌과 인제~양양 서림을 거쳐 서면 범부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고속도로의 종착점이 바로 우리군이다.

전문가들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양양 서림IC의 경우, 1일 7,439대의 교통량을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효과는 높아지고 있다.

#### ■물류집산화 및 투자유치 박차

이에 따라 새해부터 제2그린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비롯해 활발한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해 고속화시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현재 서울까지 2시간30분 소요되던 것이 1시간30분대로 1시간 이상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영

동권의 산업단지 물류집산화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양양 서면 범부리에 위치해 이를 토대로 최적의 물류차고지 육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현재 타당성 타진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서 강릉과 속초까지의 시간과 물류비용도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해 우리군을 통하면 훨씬 절감될 수 있어 물류거점지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과 우리군과의 1일 생활권에 더해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화 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을 물류집산지로 육성, 새로운 산업화의 틀을 갖추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가능 크게 변화를 맞게 되는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이다.

우리군은 이에 대비해 낙산지구와 수산지구, 하조대지구, 현남지구 등 해안가를 연결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속화시대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진 낙산지구는 내년 6월까지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진입로 확충 등 낙후된 인프라 확충에 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최대 관광지였던 낙산지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고 나아가 중장기 발전 밑그림을 그려 복합관광지로서의 위용을





# 획기적 지역발전 전환점 기대

## 우리군 물류거점 구축 · 관광인프라 확충 속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지구는 올부터 3년간 순수 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획기적인 복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가운데 경관도로를 비롯해 타일벽화, 랜드마크 설치, 해양오토캠핑장 조성, 한옥체험장, 스노클링장, 해수욕장 등 다양한 해양체험시설이 조성돼 해양관광의 주도권을 쥌 것으로 기대된다.

하조대지구는 그동안 정비해온 집단시설지구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명승지 개발사업을 올부터 본격 추진하고 이를 연계한 효과성을 높이도록 현남지구의 지경리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 양양공항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여기에 올해가 양양국제공항의 실질적인 활성화 원년이 될 공산이 높아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비가 원래대로 집행되면 현재 상하이 노선 1편에 머물던 정기노선이 항저우로 확대되고 전세계 운항도 더 활발해져 관광활성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시간이 1시간20분대로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인천에서 양양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2시간대로 크게 빨라져 인천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계 입출도 가능해 양양국제공항의 다기능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우리군은 특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오색사도 설치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2017년 말이면 운영에 들어갈 수 있어 관광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동서고속도로 조성사업의 개통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군의 저평가된 지가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균 20% 오르고 있는데다,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규 건설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등 주거목적의 인구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가 관광객을 포함해 상시적인 투자 목적의 방문객들이 가세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시인구로 환산하면 평균 10만명 가량이 우리지역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남대천 르네상스 추진사업을 본격화해 강변문화권 형성으로 잇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문화·산업화·생활편의 등 총체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올부터 구축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진하 군수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단순한 교통인프라 확충에만 머물지 않고 양양군의 총체적인 분야로 시너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 비전을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설악산국립공원 우리지역 규제완화 개발 탄력 재산권행사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우리군 서면과 강현면 등 일부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 서면 오색리 및 강현면 상복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강원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군이 계획한 원안대로 최종 변경을 완료, 이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90만9,185㎡, 농림지역은 2만9,932㎡가 감소한 반면 보전지역도 8만5,756㎡, 생산지역은 48만2,295㎡, 계획관리지역은 37만1,066㎡가 증가하게 됐다.

특히 강현면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면 오색집단지식지구 앞으로 오색삭도 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운데 안터지구, 관터마을지구, 오색초교지구와 토지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들이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따른 대단위 관광지 개발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개발담당 670-2966**

### 우리군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전국 1위

### 대한상공회의소 228개 지자체 평가...기업체감도 '으뜸' 규제완화 정책 반영 주효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2016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우리군이 최고 등급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기업체감도 지수와 경제활동 친화성 지수 등 2가지 부문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관련 행정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군은 이번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규제합리성(A등급), 행정시스템(A등급), 행정행태(A등급), 공무원평가(A등급), 규제개선의지(S등급) 등 5개 항목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군은 이번 평가와 관련, 그동안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해안철조망 철거 건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를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양양국제공항 새해 첫 국제선 취항

## 중국 하문항공, 창사노선 25일부터 심양도 재개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14일 중국 후난성 창사와 새해 첫 신규 국제선 전세기 운항에 들어갔다.

창사노선은 양양국제공항에 첫 취항하는 중국 하문항공이 170석 규모의 B737-800기종을 투입해 오는 2월25일까지 총 20편을 운항한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9시20분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회 의장, 이주익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엽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취항 축하행사를 열었다.

운항시간은 창사출발 오후 5시 양양도착 오후 9시15분, 양양출발 오후 9시15분, 창사도착 밤 12시35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총 3,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해 10월31일 중국 복건성을 방문해 하문항공과 항공회담을 열고 양양과 창사간 전세기 운항을 합의했었다.

창사는 후난성의 성도로 수로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BC 10세기에는 양쯔강 유역 남부에 있던 삼국지 초나라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1955년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된 유서 깊은 명승지가 많아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도는 향후 탑승률과 관광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하문항공과 지속적인 운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중국 심양과도 전세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의정  
소식



양양공항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지정 건의

제205회 우리군의회 임시회 개최

활주로 및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 건의



우리군의회는 지난 22일 최홍규 의장 주재로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를 열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한 이번 임시회는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가운데 201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성회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우리군의회는 지난 6일 양양국제공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공항 인프라 확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양양국제공항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공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2,500m인 활주로를 공항 건설 당시 2단계사업으로 고시한 3,200m로 확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철도망을 개선해서 인천공항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주경기장까지 68분에 연결시키겠다고 IOC와 한 국제적인 약속은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특히 “동해안의 관문인 양양국제공항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중국, 러시아 등 14개 노선에 20만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들이 이용했고 올해는 40개 노선에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자들이

지 도내 투자의욕을 보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2016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90분이면 수도권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인천공항(60분)이 서해안의 안개로 회항할 경우, 양양국제공항은 대체공항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특히, 신 동북아시아의 개막과 함께 1999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동해안 신항만 예정지가 양양국제공항에 인접해 있어 향후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정부의 기간 수송망 확충차원에서도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의 연장과 여운포의 동해안 신항만 건설, 동서고속도로와 원주~강릉간 철도의 동해북부선 연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군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기간도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양양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양양국제공항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지정 및 활주로 연장, 동해북부선 철도의 강릉~양양공항 연결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제2그린농공단지 2월 준공 공정률 95% 순조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기대



우리군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2월 준공된다.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기존 양양을 포월리 농공단지 인근(포월리 산40번지 일원) 10만 5,497㎡(3만1,944평)의 면적에 국비 21억, 도비 3억, 군비 70억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군은 동절기로 인해 오는 2월초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이나,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요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월 안으로 차질 없이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2그린농공단지의 분양현황은 전체 12필지(6만800㎡)중 3필지(1만2,477㎡)가 계약 중이며, 준공이 완료되면 추가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군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식음료품 제조업(78%)과 목재관련 제조업(22%)을 주 입주대상으로 정한 뒤 업종별로 12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골똥 없는 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군의 제2그린농공단지는 포월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등 고속화 시대에 대비해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산업화의 핵심사업이다.

정흥교 기업지원담당은 “제2그린농공단지가 준공되면 보다 많은 기업유치가 가능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발한 분양을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 높이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담당 670-2124

### 새해 살림살이 효율화 추진

### 소모성 예산 줄이고 국·도비 확보 주력

우리군이 새해 부적정한 예산은 줄이고 국비 등 의존재원은 확충하는 살림살이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등 일찌감치 의존재원의 확충에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을 비롯해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재정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발굴된 국비사업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향후 부서별로 추가 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국비확보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서별로 중앙부처 방문 등 선제적인 국비확보 대응전략으로 예년에 비해 173여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따라, 인적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융자 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전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적기에 정비하고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적극 발굴해 부족한 재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사례발굴과 잉여재산의 재투자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해 건전한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높이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몰제를 통해 자체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보조사업은 심사평가 후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사업인 경우 추가 지원을 배제하고,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후 재투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을 절감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은 원천 차단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4



### 선림원지 3차 발굴조사 '관심' 내년 4~5월경 추진 창건 당시 규모 정밀조사



우리군이 내년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찬란했던 불교성지로 잘 알려진 선림원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내년 4~5월경 국·도·군비 등 4억 원을 투입, 선림원지의 3차 발굴 작업을 벌여 창건 당시 사찰의 규모를 비롯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2016년에도 4억 원을 들여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3차 발굴을 통해 선림원지가 일반적인 사찰을 넘어 당시 승려들의 대규모 수련시설로 창건됐다는 기록을 증명할 방침이다. 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1985~1986년까지 동국대 조사단이 발굴한 유적지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면 창건 당시의 주춧돌이나 유물들을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림원의 다른 이름인 사림사와 억성사 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각종 문헌에 따르면 804년 통일신라신대에 창건한 선림원이 수차례의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에 파묻힌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근거로 추가 발굴에 나서게 됐다. 현재 드러난 선림원지의 규모는 5,385㎡로 사찰 터는 강원도기념물로, 3층석탑과 석등, 부도, 홍각선사탑비 등 4점은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다.

지난 1948년 최초 발굴 작업에서 발견됐던 동종이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진 후 6.25전쟁으로 인해 소실되면서 현재 일부 종편이 춘천박물관에, 일부는 동국대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 이를 다시 출토지역인 우리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 도립·국립공원 업무 일원화 공원관리사업소 출범 체계적 개발·관리

우리군이 올해부터 낙산도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 등 공원구역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22일 낙산도립공원사업소를 그동안 피서철에 행정봉사실로 사용하던 사무실로 옮긴 뒤 공원관리사업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원업무에 들어갔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와 공원개발부서로 나눠 낙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와 함께 국립공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낙산도립공원은 그동안 관리차원을 넘어 공원계획변경 등 지역현실에 맞는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 도립공원의 비현실적인 용도 개선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남대천 등 주요 하천수계 지역의 친환경 개발계획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원현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담당 670-2518





## 동해안 해안철책 철거구 동해북부선 폐철도 부지 용도 폐지 될 듯

### 동호리 해안철책 700m 협의 후 철거...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도 긍정 검토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로 우리군의 경계철책 일부가 시범 철거되고 동해북부선 폐철도 부지의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정종섭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합동 참모본부 본부장, 정연봉 8군단장, 김진하 군수 등 행자부와 국방부,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60년 요지부동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중세트 토론회'를 겸한 규제완화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오전 10시30분 양양 손양면 동호리 동호 해변과 강현면 물치리를 방문해 장기간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빠른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는 동해안 해안경계 철책철거와 구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폐지, 기능이 상실된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등 강원도의 3대 핵심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 ◆동호리 해안철책 규제완화 결실

정부는 이날 규제완화 현장방문을 통해 동호리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해안경계 철조망 250m와 경관웬스 450m 등 700m의 경계철책을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및 합참의장 승인 후 철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해, 연내 철거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동호해변의 해안철책을 철거

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해안 해안철책이 규제완화로 결실을 맺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문헌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해법은 없나'란 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후속으로 지역에서 해안철책 철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 그 당위성이 폭 넓게 반영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게 됐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는 이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안선 426km 중 210km가 철책으로 둘러 쳐져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철거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관할 군부대와 의 경계철책 철거 시 ▲협의절차 및 시간 단축·간소화 ▲철거비용과 감시 장비 및 유지비 부담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 ◆철도부지 사는 주민들 기대감 커

정부는 또 동해안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가 6.25전쟁 후 60년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건축물 증·개축 제한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국토부의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의거해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올해 철도부지 실태조사 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철도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 양양서 행자부·국방부·강원도·18개 시·군 규제개혁 현장점검 및 토론회

정부 관계자들은 동해해변의 해안철책철거 현장점검에 이어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요구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물치리를 찾아 구역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함께 생생하게 현장을 확인했다.

최북단 고성~속초~양양~강릉으로 이어지는 구 철도부지는 100.7km로 면적만도 337만7,000㎡에 달하는데다, 양양지역은 총 26가구가 구 철도부지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증개축도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능이 상실된 철도부지를 폐지하고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거해 지역주민 및 개발수요자 등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욱이 우리군은 강현면 물치리 쌍천 인근 맨하튼 모텔에서부터 강현농협 인근까지 주택이 밀집된 곳이 포함돼 있고 향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 설악IC와도 연계돼 조속한 용도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구 철도부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부지매각이 이뤄지도록 빠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매각도 검토

이와 함께 정부가 1976년 동해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속초~양양~강릉까지 60.1km 347만1,000㎡의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매입했으나, 기존 고속도로 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별도의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해 추진하고 있어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지난 38년간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및 부지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의 빠른 검토를 통해 도로구역 해제 및 매각절차 진행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강원도와 지자체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 해제 및 매각절차 진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 긍정 입장

우리군은 또 지난 1979년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이 급격한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립공원 내 대부분이 사유지인 공원마을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 주거 및 상업시설로 전환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낙산도립공원 전체 면적 중 8.9%(77만1,321㎡)를 차지하는 자연마을지구는 신축과 증축이 불가능하고 집단시설지구는 층고제한과 관광위락시설 입지가 불가능해 국내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 빠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10만㎡ 이상의 공원구역 해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승인 사항이므로 도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공원계획변경(안) 제출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침체된 낙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규제완화 현장점검과 토론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의료기관 및 세탁업 허용 ▲자연공원지역 내 국제회의시설 입지 허용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관광궤도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공항' 선호도 2위  
중국인 관광객 1일 평균 262명  
인천공항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양양국제공항이 무비자 입국공항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5개 국제공항 중 선호도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1일 평균 262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3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지가 중국인들의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다, 제주노선과의 연계시스템이 편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타 공항

에 비해 양양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원도가 중국지역에 상하이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저가항공사를 통한 전세기 노선을 활발하게 유치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인 관광객들의 72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노선의 탑승률이 상승한데 이어, 최근에는 무비자 입국시간이 120시간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정기노선의 추가 개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17~18일 이틀간 중국 인민망 학생기자단을 초청, 양양국제공항 및 인근 관광지 홍보투어를 진행하는 등 공항 활성화와 인지도 높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쇼핑, 숙박, 음식점, 복합관광단지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0시간 무비자로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은 설악산, 권금성, 낙산사,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서울과 제주를 방문 후 양양공항을 이용해 출국하고 있다.

올해 양양노인회관 신축사업 추진

정문헌 국회의원  
우리군노인회와 간담회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회장 김주혁)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새해를 맞아 정문헌 국회의원과 장석삼 도의원을 초청해 올해 분야별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우리군노인회는 이날 김주혁 노인회장과 이영자 부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노인들의 숙원인 양양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문헌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기틀인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회관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군 노인회가 각 마을회관에 비치된 가전제품들이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많이라며 교체를 건의하자, 장석삼 도의원이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문헌 국회의원과 장석삼 도의원, 이영자 부의장은 현재 노인회관 자리가 비좁아 신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편의증진을 위해 40~50평의 부지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카리나로 다시 찾은 행복한 삶

### 예술단 공연무대 참여 회원 16명 활발하게 활동

오카리나 찾아 양양에 이사 온 동료도



송정숙 실버기자

10년 전 강릉의 모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위문공연단이 방문해 음악회를 열었다. 그 중에서 오카리나라는 악기로 물놀이라는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 나도 배울 수 없느냐고 물으니, 강릉으로 오시라고 하기에 그냥 포기해야만 했다.

그 후 6년아 흐른 후 우리군노인복지관에 오카리나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등록한 뒤 배우기 시작했으나, 처음에는 악보를 본다는 것이 어려워 많은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니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줘 더욱 열심히 악보를 보며 실력을 갈고 닦아나가게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회원이 7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6명으로 늘어나 함께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가며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예술단이 되어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노인요양원에 위문공연을 나가기도 해 보람을 크다.

정말 배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보람과 기쁨이 우리군노인복지관의 아낌없는 뒷받침과 지도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오카리나에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동참해준 동료들의 열정도 큰 보탬이 됐다.

올 봄에 새로 들어온 한 회원은 타 지방에서 살다, 남편의 정년퇴임에 맞춰 노년을 보낼 곳을 찾다, 유일하게 오카리나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의 노인복지관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우리군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한다.

그이는 양양으로 이사와 보니 노인복지관의 최신식 시설과 규모에 감탄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또 한 번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한다.

나 역시 노인복지관에 나옴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어 더욱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찬 노년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군노인복지관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새 희망을 쓰고자 한다.

### 정신건강 지키는 당구교실 인기

교실 옮기고 정비도 해 회원 크게 늘어



이철규 실버기자



우리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이 갈수록 동호인들이 늘어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지하 1층에 설치된 당구장은 시작 할 때는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외면당하여서인지 10여명의 회원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 왔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복지관에서는 우성 관장스님이 지난 2013년 8월 지하에 있던 당구교실을 2층 프로그램 3실로 이전하며 당구대도 새롭게 정비해 쾌적

한 환경에서 당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현재는 30여명의 회원들이 당구를 즐기며 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다.

양양을 월리에 사는 전금옥(66) 씨는 2년 전부터 나오는데 “이제는 하루도 당구를 치지 않으면 몸이 편하지 못해 매일 치러와야만 한다”고 당구 예찬론을 폈다.

이연길 당구동호회 회장은 “앞으로는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해 1~2회 더 대회를 늘려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양송이 울부터 유통체계 일원화 추진

### 양양속초산림조합 공판장서 우리군 관리감독 강화



울부터 양양송이의 유통체계가 크게 강화 될 것으로 보여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군은 지난해 양양송이의 유통체계를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으로 이원화해 공판한 가운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의 운영체계가 정확하지 못한데다, 각종 운영경

비도 많이 들어가 효율성을 높여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양송이의 공판은 양양속초산림조합 지하로 통합해 실시하는 대신 기존처럼 지리적표시제 적용을 받는 띠지 두른 양양송이는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공판하고, 양양속초산림조합은 띠지 없는 송이를 공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군의 송이공판장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면 공판장 임대료 및 선별사 감축에 따른 경비절감은 물론 양양속초산림조합의 지도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송이영농조합법인 대표도 지난해 사표를 내 현재 군수가 당연직 대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산림조합 운영체계 감독기능이 강화돼 양양송이의 유통체계는 예번보다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양양송이의 합리적인 유통체계 확립 및 명품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권순노 양양자연송이영농조합 대표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은 띠지판리는 물론 택배시간 지연, 등급 조작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산림조합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산과바다 대표는 “그동안 송이클러스터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철저한 감독 하에 활성화 방안을 찾아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환기 부군수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의 존치여부와 유통구조 단일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새해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명품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복지과 산림경영담당 670-2719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추진

### 2015년 축산시책사업 설명회 고급육 출하 장려금 등 지원

우리군이 새해를 맞아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한우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축산시책사업 설명회’를 갖고 우량암소 생산, 한우 고급육 생산, 생산비 절감 지원 등 양양한우(암소)의 부가가치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한우사육 감소로 쇠퇴한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한우 암소 명품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울부터 난소불능화 시술, 한우암소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한우 고급육 초음파진단 지원, 우량한우 관리지원, 한우 암소 거점농가 축사신축 지원, 고능력 한우(Elite Cow)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 지원,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등 다양한 한우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담당 670-2705



## 역사 속에 숨은 양양의 음식문화

### 양양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매콤하고 얼큰한 장(湯)국 음식문화의 발달

지난 가을, 문화재청으로 부터 우리 선조들의 전통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컬럼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이 있었다. 때마침 생채(生菜)와 젓갈(醃)의 맛이 좋을 시기라 제민요술, 향약구급방, 음식 디미방 등의 오래 된 고문헌의 기록을 보게 되면서, 선조들의 음식과 식문화에서 음식 맛만큼이나 맛깔스러운 재발견을 하게 된 점이 있다. 화합과 절식의 의미를 지닌 생채(生菜)음식처럼 날것으로 바로 먹거나, 썩음과 삭음의 절묘한 경계의 맛을 감각으로 가려내야 하는 젓갈(醃)처럼 삭혀서 오래두고 먹거나, 물 한 술에 건더기 한줌을 넣고 품질의 조건보다 질량의 부피로 끓여 먹는 장국(湯)같은 우리음식이 발달

하게 된 까닭이었다. 그 이유를 선뜻, 한국인의 타고난 손맛 때문이요, 지역마다 제철에 나는 농산물이나 해산물 때문이라고 하기에 역지사리였다. 이처럼 날것이나 절임으로 혹은, 부피로 늘려 먹던 장국(湯)같은 우리 음식 대부분의 시작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곡식문화의 발달과 함께, 지역문화의 역사성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음식이 고유성과 전통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맛있는 음식의 양념처럼 내재 되어있기 때문이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 역사는 음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설악권 양양 사람들의 식문화만 보더라도 습습한 국물보다 매콤하고 얼큰한 장국(湯)을 더 선호하는 ‘장국 음식’을 가장 즐긴다. 전라도 순창처럼 고추장, 된장으로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장국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양양의 역사와 문화에도 숨어 있다. 6,000년 전, 산과 계곡을 두르고, 바다를 품은 지형에 선사문화가 시작된 양양은 곡절 많은 격동의 땅이었다. 장터에서 시작된 격렬한 만세운동에 놀란 일본인들이 “양양 사람들은 동지선달에 발가벗겨 놓아도 30리를 뛰다”며 독하다 하고, 양칼지게 매운 사람들이라며 “양양 하와이”라는 말로 양양

사람과 양양의 문화적 정서를 폄하시켰던 일제강점기였고, 북한 지역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는 하루에 몇 번씩 북한과 남한 땅으로 ‘땅뺏기’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양양이었다. 근대사의 시련에서 대중문화의 몰락과 함께, ‘자위’와 ‘자학’의 혼란한 경계의 땅에서도, 양양 장(場)은 구한말 당시까지만 해도, 속초 고성에 이르기까지 7개의 장터를 거느렸던, 200여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영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존재해왔다. 이렇듯 양양은 저항의 역사, 항쟁의 역사, 민중의 역사가 휘몰아 쳤던 민중들의 땅이었다.

### 저항과 항쟁의 역사에서 얻어진 ‘관습의 맛’

그 혼란의 땅에서 먹어왔던 음식 또한 무심히 흘러보내는 시간의 절편들처럼 습습하게 싱거운 맛보다, 제힘에 겨운 일에 악을 쓰고 덤비듯 모질게 얼얼하고 맵싸해서 속이라도 후련하게 해 줄 장국(湯)에 한소끔 끓인 음식들이 ‘관습의 맛’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양양 음식의 속성은 맑은 국물이나 습습한 음식류가 발달하기가 어렵고, 지역민들도 이런 류의 음식과 맛을 선택하지 않는 본능적인 역사의 입맛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양양의 3대 장국음식으로 손꼽는 섭국, 뚜거리탕, 장갈국수류가, 이를 즐겨 먹기 시작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양양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함께,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지역 실존 음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콤하고 얼큰한 생리적인 느낌의 맛이 좋아서라기 보다. 가슴처럼 뜨겁고, 장터처럼 투박한 식감이나 질감에서 느껴져 오는 저항과 투쟁의 양양의 역사를 본능적으로 일깨워주는 대리만족의 식문화 습성 때문이다. 음식 문화가 역사의 시대적 배경이자 문화적 아



이론 이듯, 양양지역의 장(湯)국 음식문화의 발달은 이들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나 편린과 결코 무관하지 않게, 장국음식에 얽힌 양양 사람들의 본능으로 양양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는 문학적 표현과도 같은 양양을 대변해주고 있는 역사음식이다.



종합

### 구제역 사전차단 총력전 방역대책본부 격상 24시간 비상근무

우리군이 최근 구제역의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확대하고 사전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본부장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부군수가 본부장인 '양양군 구제역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차단 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3일과 19일 사이에 진천, 천안, 음성, 청주 등 중부 내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돼지수가 1만7,125두에 이름에 따라 구제역 예방과 방역을 위해 6개 반을 편성 운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휴일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최근까지 시차단과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독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대상은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다.

군은 시차단과 구제역 방역을 위해 강현면 하북리 및 양양읍 포월리 위탁 양돈농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약품 공급 등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이차지원 올해 2억3만원 확보 금융기관 대출상담 후 신청

우리군이 경기침체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억3,000만원의 융자추천과 이차차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일 지원대상과 융자조건, 융자취급 금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군청 경제도시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양양군지부), 신한은행(양양지점), 단위농협(양양·서광·하조대·강현), 속초양양축협, 양양새마을금고 등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인 업체로 융자한도는 업체 유형별로 3000만원~5000만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다. 단,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신용불량 사업체이거나 영업실적이 1개월 이하인 업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체 등은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300곳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이차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경제도시과 기업지원 670-2124

###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사전심사·예약제 시행 공무원 민원교육 강화

우리군이 다양한 민원수요의 증가와 규제개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추진한다.

군은 온라인을 통한 민원시스템이 별도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등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시스템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강화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로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와 상담건과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사전상담 예약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을 직접 마주하는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법령', '고충민원 처리요령' 등을 유형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이나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불편신고제도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오는 2월부터는 '민원처리 해피콜제도'를 시행한 뒤 오는 11월 만족도를 실시해 그동안 시행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허가민원과 민원행정담당 670-224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액 상향

- 월 최대 40,950원으로 전년대비 2,700원(7.0%) 상향 -

-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배경
  -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미만 : 본인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이상 : 월 40,950원
    - ※ 2014년 최대 월 38,250원에서 2015년 40,950원으로 2,700원 상향지원
    - ※ 기준소득월액이 910,000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신고하여야 인상된 국고지원금액 받을 수 있음
- ◇ 농어업인 확인 신고 절차
  - 농지원부상 세대주 : 농지원부 제출
  - 농지원부상 세대원 :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공단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 자료 제출 없음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확인서
- ◇ 부부가 농어업에 협업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 640-9351~5)

## 녹색생활의 첫걸음! 탄소포인트제 참여

- ♣ 참여대상 : 전력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상가
  - ♣ 참여방법
    - ① 온라인 :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유형선택  
-일반참여 → 약관  
동의 → 본인인증  
(이름, 주민  
등록번호) → 정보입력  
-기본정보(D,비밀번호) -  
필수정보(주소,전기고객  
번호,통장계좌번호) → 가입
- ② 군청 및 읍.면사무소 탄소포인트 참여코너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가입
    - 준비해야 할 것 : 전기고객번호와 통장계좌번호(인센티브 지급용)
  - ♣ 참여시 혜택
    - 신규가입자 인센티브 물품 제공 ⇒ 멀티탭
    - 전기사용량 절감시 ⇒ 절감율에 따라 연 5천원에서 2만원의 현금 지급
  -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양양군 환경관리과 ☎670-2180
    - 양양읍 ☎670-2613 서 면 ☎670-2621 손양면 ☎670-2631
    - 현북면 ☎670-2390 현남면 ☎670-2651 강현면 ☎670-2660

## 2015년 소방법령 개정사항

가. 기 간 : 2015. 1월 ~ 2015. 2월(2개월)  
 나. 행정사항 : 문자전광판 및 소식지 내용 게시  
 다. 협조내용

내 용	
문자전광판	2015년 1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작동 기능점검을 연1회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군소식지	<b>【소방개정법령 사항 안내】</b> 1. 자체 소방점검제도 강화에 따라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작동기능점검을 연1회 실시하시고, 지금까지 자체보관하던 점검결과서를 올해부터는 소방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연면적 5천㎡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실시하던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동일 조건의 11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으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아파트, 숙박시설, 병원, 24시간 운영하는 노유자시설, 기숙사 및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대형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문의 : 속초소방서 630-2323~4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적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동일인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을 버리는 행위</li> <li>▪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li> <li>▪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li> <li>▪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아니 하는 경우</li> <li>▪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5% (단 1일 10건이상 신고시에는 2% 적용)</li>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적용</li>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적용</li>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적용</li> <li>▪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적용</li> </ul>
---	---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자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제출 (7일 이내)
  - 첨부물 : 근거사진 및 동영상
  - 제출처 : 군청 환경관리과(670-2186)

2월 농사정보



상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눈에 알맞은 고품질 우량종자 준비(보급종 : 오륜, 운광) 2. 발작물 영농설계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3. 고구마 저장고 관리 : 12~15℃, 습도 90~95% 4. 옥수수 보급종 신청 : 읍면사무소(1. 10 일한) ○ 품종 : 미백 2호, 미흑찰, 흑점 2호, 강일옥	축산	1. 축산 경영설계 2. 조사료 충분히 먹이기 및 호흡기질병 예방 3. 가축질병 관찰 및 일광욕시키기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연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중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참석 2. 눈에 알맞은 고품질 우량종자 준비(오륜, 운광) 3. 고구마, 옥수수 일찍 가꾸기 준비 4. 토양개량제 적기살포 : 석회, 규산질비료(서면, 강현면) 5.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 발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축산	1. 축사의 보온과 환기시키기 : 10~20℃ 2. 임신가축 운동시키기와 비타민, 광물질 첨가제 먹이기 3. 조류인플루엔자 자율방역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하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땅심높이기 : 객토, 볏짚갈기, 퇴구비 사용 ○ 축분발효퇴비 적량사용 : 10a/계분 1t, 돈분 2t, 우분 3t 2. 고구마, 옥수수 일찍가꾸기 준비 ○ 고구마 육묘상 설치 준비 : 10a당 10m <sup>2</sup> ○ 조기 재배용 옥수수 종자 및 자재준비 : 10a당 1.0~1.5kg 5.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 발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축산	1. 한우 피부손질 및 운동 시키기 2. 축사의 보온과 환기시키기 : 10~20℃ 3. 조류인플루엔자 자율방역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원예특작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 670-2701  
농촌개발 : 670-2336  
생활자원 : 670-2338  
농산물유통 : 670-2703  
축산정책 : 670-2705  
축산경영 : 670-2438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전화 : 033) 670-2701, 670-2366

www.yangyangmall.co.kr



기술지원과

작물환경 : 670-2366  
인력육성 : 670-2337  
농업기계 : 670-2958  
원예작물 : 670-2367  
특화사업 : 670-2369  
기술연구 : 670-2368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액 상향

- 월 최대 40,950원으로 전년대비 2,700원(7.0%) 상향 -

-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배경
  -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미만 : 본인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이상 : 월 40,950원
    - ※ 2014년 최대 월 38,250원에서 2015년 40,950원으로 2,700원 상향지원
    - ※ 기준소득월액이 910,000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신고하여야 인상된 국고지원금액 받을 수 있음
- ◇ 농어업인 확인 신고 절차
  - 농지원부상 세대주 : 농지원부 제출
  - 농지원부상 세대원 :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공단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 자료 제출 없음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확인서
- ◇ 부부가 농어업에 협업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 640-9351~5)

**자녀마음과 부모마음이 만나 주택연금이 되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내집에서 그대로 -  
당당한 노후를 누리세요~

**주택연금이란?**

- 평생거주, 빌리거나 또는 평생연금지급
- 공적보증
- 낮은 대출금리
- 저렴한 초기비용
- 세제혜택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대상**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이상

**상승특징**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현재 집값이 하락해도 동일 연금지급  
평생거주 평생소유권 보장  
사망후 배우자 동일연금 지급  
집값보다 더 받으면 정부부담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상속  
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대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강릉지사  
HF 033)259-3615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주택연금이 당신의 행복노후를 후원합니다.

## 2015년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사업운영 계획

-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01. 10 ~ 12. 27
  - 사업내용
    - 창의적체험 활동
    - 청소년동아리 활동
    -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
    - 청소년종합예술제(Y.T.Festival)
    - 청소년인성교육
    -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II. 사업내용
  1. 창의적체험 활동
    - 1) 겨울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5. 01. 10 ~ 02. 28(7회)
      - 운영방법
        - 매주 토요일/일요일 10:00 ~ 17:00
        - 프로그램 기본 운영시간 : 2시간
      - 프로그램 내용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원	
토요일	10:00 ~ 12:00	바둑	초등/중등	20명	
		기타	초등/중등/고등	15명	
		드럼	중등/고등	15명	
		역사 I (조선시대 이후)	초등4학년이상	20명	
		스내그골프	초등	20명	
일요일	13:00 ~ 17:0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초등3학년이상 중학교2학년까지	20명	
		역사 II (구석기시대 이후)	초등	20명	
		플래시 1:1 학습지도(수학)	초등	20명	
일요일	10:00 ~ 12:00	뮤지컬	중등 / 고등	20명	
		13:00 ~ 17:00	밴드 - 초급	중등 / 고등	10명
			밴드 - 중급	중등 / 고등	10명
			밴드 - 고급	중등 / 고등	10명
계		플래시 1:1 학습지도(영어)	초등	20명	
		13개 프로그램		220명	

2. 청소년동아리 활동
  - 1)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5. 01. 10 ~ 12. 31
    - 참여대상 : 관내 청소년 2인 이상
    - 활동영역 : 예술, 문화, 환경, 스포츠, 자원봉사 등
    - 연간활동내용

1월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아리 활동 평가</li> <li>· 청소년동아리 발전방안 논의</li> <li>· 청소년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 작성</li> <li>· 청소년동아리 모집활동 및 오리엔테이션</li> <li>· 청소년동아리 운영규정 개정</li> </ul>
↓		
4월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연합동아리 입회식</li> <li>· 청소년동아리 워크숍 및 연합활동</li> <li>·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동아리 발전방안 논의</li> <li>· 청소년동아리 정기활동, 교류활동 운영</li> <li>· 청소년 행사, 지역축제, 청소년종합예술제(Y-T Festival) 참가</li> </ul>

##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안내

▶ 일몰 후부터 익일 07시 까지만 배출합니다.(금요일부터 일요일 일몰전까지 배출 금지) ◀

구분	쓰레기 종류	배출시간	수거일	배출방법	봉투종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용)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 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 출	50, 100, 200, 300, 500
생활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소각용) 젖은스티로폼, 벽지, 베개, 인형, 완구류, 카세트테이프	수거일 전일 일몰후부터 수거당일 7시까지	월 수 금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50, 100, 200, 300, 500, 750, 1000
재활 용품	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 영농폐기물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병비 닐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검정봉투 사용금지
대형 폐기물	현이불, 가전제품, 유모차, 각종가구류, 대형완구, 변기, 욕조, 매트리스, 가방, 거울, 액자, 고무통, 화분, 옥매트 등	월요일 일몰후부터 화요일 07시까지	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수수료 납부 (대형폐기전은 무료 배출)
불연성 폐기물	유리, 도자기류, 화분, 타일, 화 장품병,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 타지 않는 쓰레기	수요일 일몰후부터 목요일 07시까지	목	불연성전용매대 (붉은색)에 담아 배출	200, 500, 1000

- ♣ 대형 폐기전은 무상방문수거 합니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미터 이상)  
- 대형 폐기전을 배출하려면 전화1599-0903으로 미리 예약해 주세요
- ♣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 1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쓰레기 불법소각, 무단투기,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2015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2015년말까지 기존 주택도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  
토록 법 의무화되어,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
- 신청주택 : 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 신청기한 : 2015. 8. 31일까지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신청자격 해당여부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요망)
- 신청자격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③ 독거노인 : 65세 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노인복지법)
  - ④ 장애인(1~3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 ⑤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  
(아동복지법)
  - ⑥ 기초노령수당 수급자 : 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법)
  - ⑦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  
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  
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 2015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접수

1. 목적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  
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통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보  
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2.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부속건  
축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  
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  
리
  - 보관중인 슬레이트 수거 처리
3. 신청기간 : 2015. 1. 19 ~ 2. 13일까  
지
4. 신청장소
  - 군청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  
(☎670-2183)
  - 읍면 : 총무담당 및 주민생활지  
원담당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비치 : 군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6.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50%), 군비  
(50%), 자부담
  - 가구당 지원(보조)단가 : 3,360  
천원(수수료 포함)
  - ※ 지원(보조)금액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비용과 지붕 씩  
우기는 소유자 자부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  
관리과(☎670-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강릉캠퍼스  
**신입생 모집**

http://gangneung.kopo.ac.kr

취업까지 책임지는 폴리텍대학!!

**모집과정**  
테크니션(기능사) 1년 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직종)	컴퓨터응용기계과	발전설비과	자동차과	전기제어과	전자통신과	관광산업과
	컴퓨터응용기계	발전설비장비	공조냉동기계	특수용접	그린카장비	전기시스템제어
모집인원	30	30	30	30	60	60

**모집일정**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인터넷접수	2015.2.12(목)	2015.2.16(월)	2015.2.16(월)~2.23(월)
창구접수			
2014.12.1(월)~2015.2.10(화)			

**입학특전**

- 교육비용 전액 국가지원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실습비 등)
-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매월 25만원)
- 성적우수자 및 모범생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 확장자 기술사 제공(명거의 거주지 우선 배정)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취득(필기시험 면제)
-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NAVER 강릉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주소 : 210-032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인하문예(교학체) : 033) 610-6111~8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봄 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 봄 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재는 2,200건 발생
  - 매년 60여명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 논둑의 층은 이로온 층이 89%인 반면 해로운 층은 11%에 불과합니다.

**나무보일러 주위의 인화물질(낙엽 등)을 제거합니다.**

- 나무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열감, 낙엽 등) 및 인화성 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보일러 잔재 처리시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나무보일러 주위의 인화물질(낙엽 등)을 제거합니다.**

- 나무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열감, 낙엽 등) 및 인화성 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보일러 잔재 처리시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하세요.**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합니다.
- 소각은 반드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 전화대 및 전화차량 지원받아야 소각을 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양군 산불대책본부(670-2424,2727), 소방서 119, 동해안 산불관리센터(640-8570-5)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음식점 「금연구역」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정부-지자체 합동 지도 단속(2014. 12. 15 ~ 12. 31)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양양군보건소

양양읍 공고 제 2012-5-1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14년 12월 일

**양 양 읍 장**

- 사업명 : 『김기화』건축신고에 따른 도로(변경)지정
-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산26번지
- 도로길이 : 당초 : 38.0m ⇒ 변경 : 49.75m
- 도로폭 : 당초 : 3.45m ⇒ 변경 : 4.0m
- 도로면적 : 당초 : 131.0㎡ ⇒ 변경 : 199.0㎡
- 지번별 도로부지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3,331.0	199.0		
양양읍 청곡리	104-4	임야	3,331.0	199.0	김기화/이진숙	도로지정동의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합시다!**

우리군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10만원,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의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2.12월 150㎡ 이상-'>'14.1월 100㎡ 이상-'>'15.1월 모든 음식점 또 커피전문점 및 일부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 ☎ 670-2538





세계 **복** 많이 받으세요

# 미래가 더 기대되는 수경정유양도시, 양양

서울에서 양양까지 한 시간대!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도시에서 세계로 미래로 -

동북아교통의 중심지이자 웰빙관광도시인 양양 -  
신동해안 시대, 차별화된 산업인프라와 특화된 기업환경 마련으로 양양에서의 투자는 세계로, 미래로 가는 지름길!  
우리는 양양과 함께 미래를 설계합니다.

[www.yangyang.go.kr](http://www.yangyang.go.kr)